

인사말씀



특집을 내면서...

TO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지 제 4권 3호의 편집을 맡으면서 우선 본 연구회지가 위성 및 우주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회지로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 편집위원과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96년을 마감하면서 발행하는 본 연구회지도 회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알찬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90년대 초반 무궁화위성사업으로 비롯된 국내의 통신위성 및 우주산업분야는 현재 2세대 위성인 무궁화 3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국산화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을 표출함으로써 국내 우주산업 분야의 자립화 기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사된 무궁화 1, 2호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도 관련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위성통신의 장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궁화위성을 주축으로 하는 국내 위성통신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GMPCS 사업에도 국내의 통신사업자 및 산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내 통신위성 및 우주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GMPCS와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통신위성 및 우주관련기술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고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제 4권 3호는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위성통신 서비스 및 사업동향을 특집테마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회지가 계획되는 동안에 성황리에 개최는 APSCC '96과 SEOUL AIR SHOW '96을 참관기를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기해 바쁘신 와중에도 옥고를 내주시어 연구회지 발행에 몰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통우연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회지가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집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집위원장 이 병 섭